

윤구병 <함과 됨>

제4강 - 공동체 형성 과정 (1교시)

◆ 공동체 형성 과정

오늘은 각각의 여러 측면에서 보면 크게 세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라 그럴 땐 큰 틀의 공동체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경사회, 유목사회, 도시사회. 여기서 도시사회도 성격이 두 가지로 갈라질 수 있죠. 서부 맑시스트들이 따로 구별하는 아시아적인 전제가 이루어지는 도시와 지중해 연안의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해안도시 사회. 성격이 다르죠. 그리고 농경사회하고 유목사회는 어디에서나 크게 다르지 않고 비슷한 측면이 있고~ 저번 시간에 제가 최초 공동체를 형성하고 산 사람들은 여자들이었다고 말씀드린 적 있나요? 충분히 설명을 안 했나요?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듣는 것은 전혀 객관적인 근거도 없고 누가 책으로 쓴 바도 없는, 저의 상상과 몽상, 때로는 망상까지 곁들여진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한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십시오. 어쩌다가 머릿속에 담기는 것이 있으면 담아두시길 바라구요.

저희 집안 이야기이기도 한데, 저의 아들이 오랑우탄 직계라고도 이야기한 바가 있으니까~ 저희 집안사정과 곁들여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구의 기후변화는 단속적으로 혹은 일정한 주기를 두고 계속적으로 기후가 바뀌어왔다는 건 다 아시죠? 지금은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최근의 빙하기가 지나고 나서 간빙기에 우리가 있다고 그랬죠? 몇 만년 전에 빙하기가 천천히 날씨가 풀리기 시작해서 간빙기가 시작했다고 그랬나요? 고생물학자나 지질학자 같은 사람들의 증언을 들으셨을 텐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숫자에 약하기는 마찬가지인 거 같습니다. 한 이만 년 전 정도가 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으니 꼭 믿지는 마십시오. 독일 사람들이 이런 것을 싫어하죠. 정밀과학, 엄밀 과학 바탕 위에서 실증 과학적인 검증이 되지 않은 이론에 대해서는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그건 상관없는 이야기이고, 간빙기가 시작된 게 이만 년 전 이야기라고 생각해봅시다. 그런데 그 전에도 늘 되풀이돼서 빙하기와 간빙기가 이 지구상에 번갈아 들었다고 하니까, 그리고 인류가 이 지구상에 뿌리를 내리고 산 지는 리처드 리키, 마리 리키, 리키 집안 가운데 부부가 아프리카 오드바이 계곡에서 인류 두개골을 파헤치는데 대를 이어서 현생인류 나이를 굉장히 높이 끌어 올렸죠. 전에 안트로피테코스라는 것은 유인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유인원에서부터 현생 인류로 오는 과정에서 호모하빌리스라는 건 손재주 있는 인간이라는 이야기라는 거겠죠. 또 중간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프리카노스에서부터 내려오는 과정입니다. 호모에렉투스가 두 뒷발로 곧추 선 두 앞발을 마음대로 놀릴 수 있게 어정어정 걸어 다니던 인간이라고 해서 호모하빌리스, 손재주 있는 인간, 그 다음에 호모사피엔스, 현생 인류는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기간 동안이 옛날에는 수십만 단위라고 했는데 지금은 백만 단위 넘어서는 쪽으로 연대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 긴 세월 동안에 빙하기와 간빙기가 지구를 번갈아가면서 덮었는데... 생각을 해봅시다. 빙하기가 오게 되면은 인류들은 어디에 주로 모여 살았을까요? (학생: 동굴 속) 동굴 속? 뭐~ 그렇죠. 그런데 적도 부근에 살았겠죠? 다른 데는 북극에서부터 온대지방까지 지금의 한대지방, 온대지방까지 전부 얼음으로 뒤덮이게 되고 오직 적도부근만 말하자면 따뜻한 곳이었을 테니까. 만일에 빙하기 때의 적도 부근을 상상 속에 그려봅시다. 빙하기 때 적도 부근은 어떤 기온상태고, 어떤 동물과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을까요? 지금은 적도가 열대우림지역이 되어있어서 사람이 살기가 상당히 거북한 곳이고, 지나치게 많은 비와 따가운 햇살이 내리 쬐이고 있어서 살기가 힘든 곳이 되고, 점점 날씨가 풀림에 따라서 그 생활 조건이 적도 지역까지 악화되면서 식물들도 꽃피고 열매 맺는 나무들도 점점 온대 지방으로 퍼져가고, 여러 가지 열매가 달린 풀들도 온대지방으로 퍼져 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도 적도를 중심으로 남과 북으로 퍼져 나가게 되었겠죠? 실제로 그 전 빙하기에는 적도 지방이 과일나무도 많이 있었고, 농사짓기 좋은 논밭의 초원 상태고 열대의 넝쿨이 우거지지 않은 아주 살기 좋은 곳이었고, 게다가 적도 지역이 어떻습니까? 그 지역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나누어지나요? 아니었겠죠? 정말 철없는 곳이었겠죠. 그래서 사람이나 다른 동물이나 풀 같은 것도 철없이 살 수 있었고~ 철없이 살수 있다는 것이 낙원이죠. 절대로 머리를 쓸 필요가 없죠. 손만 뻗으면 먹을 것이 있고,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없으니까 자고 싶을 때 자면 되고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에덴동산은 아마 빙하기 때의 적도 모습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하느님이 에덴동산에다가 지혜의 열매가 달린 생명수를 하나두고 그 생명수 아래서 배꼽 없는 아담과 이브가 살도록 했는데 하느님도 경악할 만한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생명수의 열매가 그런 겁니다. 생명수라는 것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수이죠. 그런데 그 생명수에 열매가 달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실제로 그 생명수는 언젠가 죽고 그 열매가 간직하고 있는 씨앗이 떨어져서 재생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엄청나게 큰 재난이죠. 아담과 이브에게 생명수를 보고 날마다 그 늘에서 절하고 경배하면서 지내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열매가 맺으니까 (제가 지금 소설을 쓰는 겁니다~ 소설을 쓰는 건데) 하여튼 열매가 맺으니까 하느님이 깜짝 놀라서 절대로 그 열매에 손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어디선가 뱀이 나타나서 저 열매를 먹는 게 좋다고 이브를 꼬이죠. 실제로는 하느님도 너희 목숨 보장 못하니까 저 열매 먹어라, 이런 식으로 꼬였겠죠. 그래서 그걸 먹으려고 아담이 한 모금 딱 베는 순간, 그것이 목에 걸려가지고, 아담스 애플인가요? 그게 남자는 생겼다고 그러죠. 그리고 하느님이 이제 이 에덴에선 살 수가 없다 하여 아담과 이브가 쫓겨나죠.

그런데 이 시점이 간빙기하고 겹쳤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간빙기하고 겹쳐가지고 실제로 기온이 높아지니까 그 동안 그렇게 살기 좋았던 적도 부분을 열대우림지역으로 바꾸고 넝쿨지대로 되고 바닷물은 점점 수위가 높아져가지고 그 근처 배가에 가면 늘 조개를 주워서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그것들은 전부 물속에 잠겨버리고 점점 살기 어려워지니까 나무가 북으로 흩어져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나무도 그렇고 열매가 달린 풀도 그

렇고 거기에 따라서 짐승도 사람도 전부 먹이를 찾아서 남과 북으로 퍼져나가고 사람도 그 운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고 칩시다. 온대 지방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철 있는 곳이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가 철이 들어오고 철이 나가는 것, 그래서 실제로는 온대지방으로 옮겨간 사람들은 철이 나고 철이 들어야 살 수 있는 곳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서로 그 전까지는 하느님이 보장해줘서 영원히 살 수 있었으니까 서로 안고 아이를 낳을 생각도 없었겠죠. 그럴 필요가 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생명의 동산인 에덴동산으로부터 쫓겨났으니까 우리가 재생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배를 맞춰서 아담과 이브 사이에서 카인과 아벨이 태어났다고 그러죠.

카인과 아벨은 실제로, 카인은 농사를 짓고, 아벨은 목축을 하죠. 그러니까 유목사회와 농경사회가 여기에서 갈라지는 계기가 되죠. 그렇죠? 이제 카인은 적당한 땅을 발견해서 거기서 씨 뿌리고 짐승 길들이고 하면서 주저앉아 사는데, 아벨은 짐승들을 데리고 초원을 찾아서 멀리멀리 떠나는 운명에 놓인 것이죠. 그런데 성서에는 카인이 아벨을 죽였다고 나오죠. 다시 말하면 농경 공동체가 유목 공동체보다도 더 지배적인 공동체가 되었다는 말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시 공동체는 아프리카에서부터 소단위로 이루어지는 여자들이 주도권을 행사해서 이룬 공동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 해석이 아닐까 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포유류 가운데 제법 기특한 게 인간 수컷입니다. 왜 그러냐면 포유류 가운데서 유인원까지 포함해서 암컷에게 씨만 뿌려놓고 달아나지 않는 수컷이 별로 없습니다. 죄다 씨만 뿌려놓고 달아나버리거든요. 근데 인간은 실제로는 여자가 쳐놓은 울타리 속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노력 봉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얼마나 영악하냐 하면 남자들을 가두어 놓고 부릴 수 있는 역량을 지녔어요. 이게 남자들은 반편이라고 부릅니다만, 왜 반편이냐면 그건 생물학적으로도 증거가 있습니다. 서로 더불어 살려면 실제로 언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인간 수컷의 두뇌는 서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을 할 때 왼쪽 뇌만 작용을 합니다. 그쪽에만 불이 들어와요. 그런데 인간 암컷은 양쪽 다 들어옵니다. 여자가 온전한 인간이라 하면 남자는 반편이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편인 남자를 길들이기는 참 쉽기는 쉬웠겠어요.

사정은 이렇습니다. 우리 가정사니까 발설하기가 좀 그렇지만, 실제로 말하자면 그 동안에는 수컷이 게을러도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적도 부근에서만 살았다면 손만 뻗으면 늘 먹을 것이 주렁주렁 달려 있으니까 일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얼음이 풀리면서 적도를 중심으로 양쪽의 온대 지방에서 살면서 널리 풀밭이 있고 나무들이 듽성듬성 서 있는 건데 지금 아프리카 나이로 국립공원같이 온갖 야생동물들이 뛰어다니는 그런 비슷한 곳이 사방에 있으니까 사냥하러 간다 하고 떼 지어서 몰려나갑니다. 그런데 요즘 그야말로 아주 정밀한 조준 망원경이 있는 사냥총 가지고도 사냥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짐승사냥하기가. 그런데 꼬챙이 하나나 거기에다가 돌멩이 돌돌 감아가지고 무슨 사냥이 되었겠습니까? 그냥 가사노동에서부터 벗어나는 구실로 우르르 떼 지어서 다니는데, 그러다보니 쫄쫄 굶고, 가

을이나 겨울이 오면 먹고 살 일이 어디 있어요. 동굴에 불 피워 놓고 덜덜덜 떨다가 실제로는 나와서 옛날에 씨만 뿌리고 달아난 암컷들에게 간단 말이죠. 짐승이나 사람이나 애를 배고 갓난애가 생기면 실제로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지도 못하고 좁은 지역에 모여 살면서 거리에 풀 같은 것들을 맛보고 씹어보면서 먹을 만한 것을 캐다가 주변에 심고 해서 농작물들을 기르기 시작하고 길들인 짐승 새끼나 우연히 발견된 것들 주워서 우리 속에다 가둬서 기르기 시작하죠. 수컷들이 돌아왔는데 다 굶어 죽었을 줄 알았는데 이게 제법 살아남았고, 곡식도 저장해 놓고 짐승도 길들이고 해서 겨울날 채비를 다해 놓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살자고 공동체를 슬그머니 들이민거죠. 그래서 모계사회가 시작된 거죠. 주권의 출처는 경제권에 있는데 공동체를 형성하고 경제활동을 해서 생산을 하고 재생산을 하는 기초를 닦아놓은 게 여자들이고, 남자들은 여자공동체에 기생하는 존재로 붙어 산거죠. 여자공동체에. 남자들은 기분 나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계 사회가 수십만 년이 인류사회가 지속된 것이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